

기업국가 대한민국이 만든 '헬조선' 분석



주식회사 대한민국
박노자 지음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이다. 그 가운데 '헬조선'은 지옥의 뜻을 지닌 hell과 전근대국가인 조선의 합성어다. 헬조선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빚낸 말이다. 한국사회에 대해 날카롭고 근본적인 성찰을 이어온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가 발간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 같은 헬조선에 대한 분석이다. 저자는 헬조선의 원인, 그럼에도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풀어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가 꼽은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자본의 탐욕을 견제하고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업국가'화 되어 자본의 이익 보호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식회사에 견주면 상황은 보다 명확해진다. 과연 (주)대한민국의 주주는 누구인가? '경영 참여는 꿈도 못 꾸고, 하라는 대로 잔업과 특근을 하느라 일주일 실질노동시간이 50~60시간이나 되는, 40대 이상이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질환을 앓게 되는 대한민국의 '피곤한 노동자'들은 과연

'주주'인가?

저자는 대기업의 대주주와 임원, 땅부자 등 고액자산보유자들이야말로 진짜 주주라고 말한다.

이들은 흔백 등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돼 공고하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변모했다. 그로 인해 (주)대한민국은 기업 중에서도 악질 기업이 되기 쉽다. 주주들의 배당금 극대화만을 위해 분투할 뿐 피고용자에 대해선 주주 배당금 극대화의 '재료'쯤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대기업-하도급중소기업으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경제구조가 이를 방증한다. 재벌은 제한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며 대부분은 각종 하도급, 영세업체에 고용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 혹은 '알바'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결국 문제는 '정치'다"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정치란 단순히 정치인들의 행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 구조와 그 구조를 유지하려는 지배계층의 힘, 그에 맞서는 피해대중들의 영향력, 이 두 거대한 힘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 사회는 공몽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자율적인 개인들 사이의 연대만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 시대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 그려



담배를 든 루스
이지 지음

중앙장편문학상의 일곱 번째 수상작 '담배를 든 루스'가 출간됐다. 제7회 중앙장편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의 작가는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온 이지 씨다. 심사위원 가운데 한명인 이순원 작가는 "보편성의 세계에서 이 시대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그려내고 그게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평했다. 등단 한 해 만에 신춘문예, 중앙장편문학상을 연달아 거머쥔 신예 소설가는 독창적

캐릭터와 내러티브가 돋보이는 자신만의 작품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주인공은 삶의 무기라고는 절친 생활력과 잡다한 알바 경력이 전부인 스물셋의 '나'.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늘 쪼달리는 생활비 때문에 대학은 휴학하고 의미 없는 나날을 살아간다. 능력이나 집안이나 모두 월등한 절친 '런디나'는 '더 이상 자판기 같은 존재를 거부한다며 절교를 선언하고 런던으로 떠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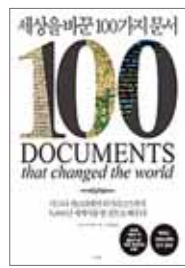
'나'는 '날씨연구소'라는 정체불명 비의 구인광고를 보게 된다. 말장난 같은 면접을 거쳐 그곳에서 일하게 된 나. 어느 날 평소 아껴주던 일본인 손님 요키 상이 '실례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긴 채 돌연 생을 마감하는 일을 겪게 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역경·마그나 카르타 ... 인류의 역사 바꾼 기록들

세상을 바꾼 100가지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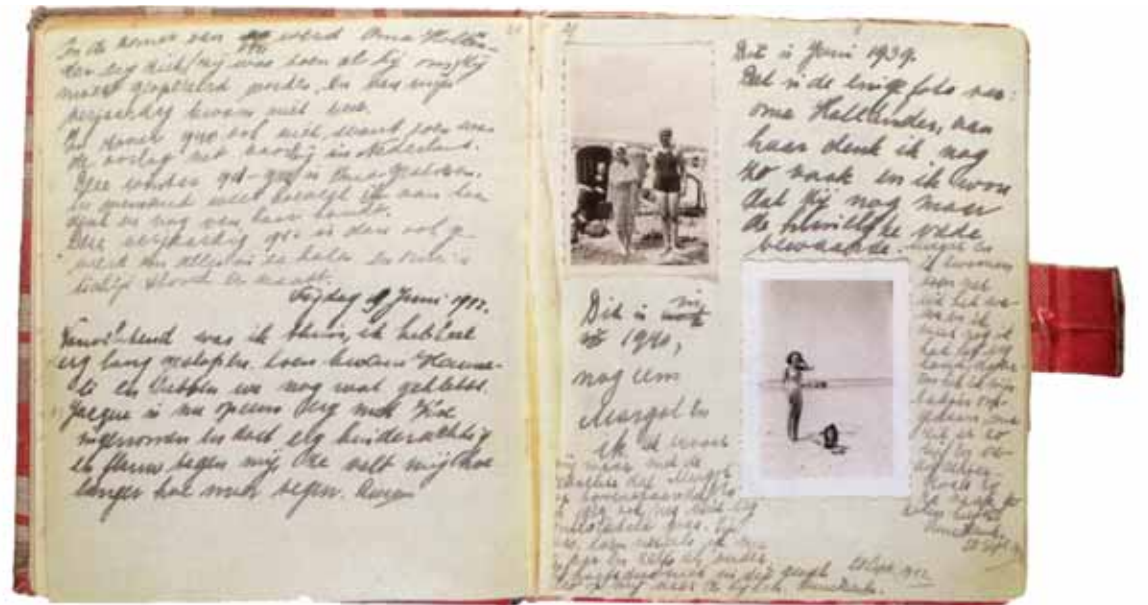
스콧 크리스텐슨 지음



역사는 이야기 주제에 따라 서술방식이 달라진다. 서술방식은 해석과 직결된다. 정의롭지 못한 주제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것은 서술자의 관점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국정체제가 불리를 피해 때문이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주제와 기술방식, 관점의 확립화가 가져올 부정적 판단을 이야기한다. 국정화를 찬성하는 쪽은 좌편향된 기술로 학생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힌다는 이유를 든다.

아무리 명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 해도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신지, 성장 배경, 교육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나온다. 고전적 명제가 돼버린 E. H. 카의 명언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은 이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역사를 엄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조한욱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읽는 내용에 의심을 가지면서 백과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참고 도서에서 얻은 지식과 대조하며 독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홀로코스트의 삶을 기록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지금까지 3천만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리의는 제공>

또 다른 방식으로는 "원 사료를 읽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말 그대로 원 사료란 '역사가의 해석을 거치지 이전의 문서나 자료'를 말한다. 조 교수는 "원 사료를 읽으면서 독자는 나름대로 과거를 재구성하며 스스로 역사가 되어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맞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예기, 인류의 역사를 바꾼 100개의 문서가 있다. 이 문서들은 세상과 인간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시킨 역사의 산인들이다. 작가지자 저널리스트이며 인권활동가인 스콧 크리스텐슨이 펴낸 '세상을 바꾼 100가지 문서'는 인류의 무수한 역사 속에서 100장만을 엄선했다. 고대 중국의 역경부터 사비대 사찰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파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마디로 마그나카르타에서 위키리크스까지 5000년 세계사가

한권에 담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책에는 기록이 인간을 바꾼 부분도 수록돼 있어 흥미로운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 중국 철학의 전형으로 알려진 역경은 기원전 2800년에 만들어졌다. 점괘를 뽑아 개인이 처한 상황과 미래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중국 문명의 연구를 위한 단서들이 담겨 있다. 기원전 750년경으로 추정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 문학의 근간이 돼 왔다. 학자들은 여전히 고전의 저자가 한 사람의 천재인지 혹은 여러 명의 천재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 1215년 중세에 작성된 중세의 대헌장은 군주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 최초의 문서다. 잉글랜드 만민법의 토대로 여겨지며 정의, 공평, 인권의 상징이 됐다. 그뿐인가. 1863년 에이브러

햄 링컨이 선언한 노예해방은 미국 건국 이념에 생명을 불어넣은 대사건이다. 이 문서는 자유에 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홀로코스트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는 안네 프랑크 일기는 고전이 됐다. 어린 유대인 소녀가 남긴 일기는 지금까지 67개 국 언어로 번역돼 3000만부 이상 팔렸다. 100가지 문서를 작성한 이들 가운데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도 있다. 클리스토 퍼 콜럼버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틴 루터,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이 해당한다. 또한 책에 묘사된 기록 가운데 일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단초로 작용했다. 함무라비법전, 알함브라 칙령, 베르사유 조약 같은 문서가 그렇다. <리의는·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지털 시대를 향한 현대철학의 도전



인간 인터넷
마이클 린치 지음

현재의 과학기술 발달 속도를 볼 때, 인간의 두뇌가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술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 어떤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세상, 사실 우리의 삶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과연 인터넷 시대는 인간의 사고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바꿀까? 코네티컷대학교 철학 교수이자 인식론 분야의 권위자인 마이클 린치가 펴낸 '인간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을 넘어 인간 인터넷의 시대로 접어든 실상을 분석한다. 저자는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바뀌고 있는 지식의 모습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터넷을 통해 얻는 지식을 과연 완전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끝까지 질문했던 소크라테스의 태도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리의 근본으로 삼았던 로크의 철학을 강조한다. <사회평론·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33년간 아이들과 겪었던 동화같은 이야기



감성 지휘자 우리 선생님
박중국 지음

"때론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게 하라. 침묵하며 자연을 느껴 보게 하라. 나무와 풀꽃과 함께하게 하라. 새소리를 많이 듣게 해주고, 자연을 좀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일깨워주라. 그러면 아이의 소중함이 절로 눈에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아이들이 맞는 옷가지를 만드는데 충실했던 33년차 교사 박중국의 감성교육 에세이 '감성 지휘자, 우리 선생님'이 출간됐다. 수필가로 꾸준히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써온 저자는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선생님,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되길 바란다. 그가 지난 3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겪었던 일들을 동화처럼 맑게, 작하게, 깊이 있게 담아냈다. 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교육과 세상을 바라보는 저자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진실한 말로 하나하나 짚어 준다. <살림터·1만5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임의는 국가주택보증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청약 이익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흥 1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집중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